

청소년들의 피임실천율 및 피임방법(2007~2009년)

이한주¹ · 강희선²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¹,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²

Rates and Methods of Contracep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from 2007 to 2009

Lee, Han Ju¹ · Kang, Hee Sun²

¹Researcher,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rates and methods of contracep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from 2007 to 2009. **Methods:** The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The data were taken from a web-based survey on risk behavior of Korean youth that was conducted between 2007 and 2009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sults:** Among adolescents, 4.7% in 2007, 4.6% in 2008, and 4.7% in 2009 reported having had sexual intercourse. In those who had sexual experiences, less than 30% reported consistent use of contraception, whereas more than 45% report no contraceptive use at all. A condom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contraceptive method and its use has increased continuously among contraceptive users. Some of the adolescents were, nevertheless, using unreliable methods such as withdrawal or the rhythm metho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ost adolescents are not using contraception consistently and some were relying on unreliable contraceptive methods. Efforts to raise awareness about consistent and correct contraceptive use and the importance of dual protection are essential.

Key Words: Adolescent, Contraception, Sexual behavio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 청소년들의 빠른 성장과 각종 매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성에 대한 정보들로 청소년들의 성경험이 증가하고(Kim & Kim, 2010; Kim & Woo, 2010), 이로 인한 십대 임신, 인공유산, 성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교육 및 피임교육 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행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행태 조사 중, 성행태는 2006년 2차 조사(Kim & Kim, 2010; Lee, Choi, Cha, Kim, & Lee, 2009), 2007년 3차 조사(Lee, Choi, Cha, Park, & Lee, 2010, 2008년 4차 조사(Chun, 2010; Park, 2010) 결과가 일부 보고된 상태이다. 그러나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이용한 청소년의 성행태 분석은 전체 대상자중 성행태가 해당년도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는지 감소추세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Lee 등(2009)은 2007년 3차 조사결과에 근거한 청소년들의 성행태를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실시된 1차, 2차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보고하였으나 콘돔이나 경구피

년들의 건강행태 조사 중, 성행태는 2006년 2차 조사(Kim & Kim, 2010; Lee, Choi, Cha, Kim, & Lee, 2009), 2007년 3차 조사(Lee, Choi, Cha, Park, & Lee, 2010, 2008년 4차 조사(Chun, 2010; Park, 2010) 결과가 일부 보고된 상태이다. 그러나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이용한 청소년의 성행태 분석은 전체 대상자중 성행태가 해당년도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는지 감소추세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어: 청소년, 피임, 성행태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ang, Hee Su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16-569-4370, Fax: 82-2-824-7961, E-mail: goodcare@cau.ac.kr

투고일: 2011년 4월 16일 / 1차심사완료일: 2011년 5월 15일, 2차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일

임약과 같은 피임방법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피임법의 사용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2009년 5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피임 행태를 보고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성의식이나 성행태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강원도 중학생의 성(sexuality) 실태 및 성행태(Choi, 2010),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낙태에 대한 인식(Yang, 2004), 여고생 피임지식과 성행태(Lee, 2009),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사용의도(Kang, 2009), 인문계와 실업계 여고생들의 피임지식(Lee & Cho,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피임행태를 부분적으로만 보고하고 있거나 편의추출하여 결과의 일반화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전국을 단위로 계층별, 집단별로 층화하여 조사했다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행태는 2005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으나 2005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조사대상에 포함시켰고, 2006년 이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하여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게다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약간의 변화를 가했기 때문에(예를 들어 성병문항, 피임방법 선택문항 등) 연도별 조사결과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성행태 관련 문항들에 대해 동일문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3년간의 청소년들의 피임실천율 및 피임방법을 분석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소년들의 성관계경험률 및 성경험자들의 피임실천율 및 피임방법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07년(제3차), 2008년(제4차), 2009년(제5차)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조사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중·고등학생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800개 표본학교(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이며,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제3차, 제4차, 제5차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연구대상자는 2007년에는 총 74,698명으로, 이 중 남학생이 39,466명, 여학생이 35,232명이었다. 2008년에는 총 75,238명으로, 남학생이 39,278명, 여학생이 35,960명이었다. 2009년에는 총 75,066명이었고, 남학생이 39,612명, 여학생이 35,45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피임실천율 및 피임방법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성관계경험이 없거나 동성과 성관계 경험자를 제외하고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만을 추출하였으며, 2007년 총 3,493명, 2008년 3,492명, 2009년 3,497명이었다(Figure 1).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된 건강행태 원시자료에서 일반적 특성과 성행태와 관련된 항목 중 일부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학년(1, 2, 3학년), 건강상태, 흡연, 음주, 경제적 상태, 음주 후 성관계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성행태는 성관계 경험, 피임실천(성관계 경험자), 피임방법 사용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관계 경험은 평생 동안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피임 실천은 성관계 경험자 중 성관계시 피임법을 사용한 사람을 의미한다. 피임실천과 피임방법은 각각 한 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피임실천은 ‘성관계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습니까?’ 문항에 ‘항상 피임을 했다’, ‘대부분 피임을 했다’, ‘가끔 피임을 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로 측정되었다. 피임방법은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먹는 피임약, 콘돔,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 응급피임약(사후 피임약), 자궁내장치(루프)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연구자가 청소년 건강행태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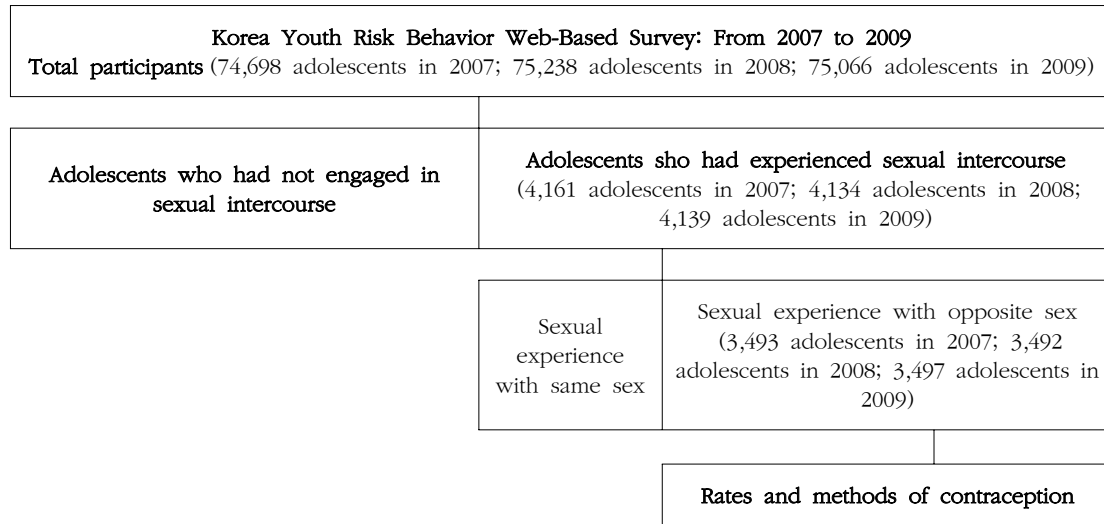


Figure 1. Selection process for participants.

라인조사 원시 자료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기관에서 연구목적에 위해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후 이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약 8만 명이였다.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이루어졌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45개 지역군(16개 시·도내의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을 고려한 분류)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을 층화 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35개 층(strata)으로 나누었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한 후, 16개 시·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계통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한 후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학생전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문에 자가응답하여 이루어졌으며,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복합표본설계를 하였으므로 표본설계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원시자료 분석은 자료이용 지침서에서 제시한 표본가중치를 반영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계 경험, 피임실천 및 피임방법에 대해 연도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은 2007년에는 남자가 2,511 (71.9%), 2008년에는 2,418 (69.2%), 2009년에는 2,486 (71.1%)로 여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년은 고 3학년이 2007년에는 1,240명(35.5%), 2008년에는 1,231명(35.3%), 2009년에는 1,202명(34.4%)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 또는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군이 2007년에는 63.1%, 2008년에는 63.1%, 2009년에는 62.7%로 대체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건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음주경험은 2007년 87.1%, 2008년 84.8%, 2009년 85.0%로 나타났으며, 음주 후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07년에는 34.4%, 2008년에는 32.8%, 2009년에는 32.7%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흡연 경험은 2007년 72.5%, 2008년 72.4%, 2009년 73.3%이었다. 경제상태는 '중하'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2007년에는 35.5%, 2008년에는 34.7%, 2009년에는 35.5%이었다.

2.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자는 2007년 총 74,698명 중 3,493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2007 (n=3,493)	2008 (n=3,492)	2009 (n=3,497)
		n (%)	n (%)	n (%)
Gender	Male	2,511 (71.9)	2,418 (69.2)	2,486 (71.1)
	Female	982 (28.1)	1,074 (30.8)	1,011 (28.9)
Grade	Middle School			
	Freshmen	182 (5.2)	210 (6.0)	198 (5.7)
	Junior	246 (7.0)	229 (6.6)	207 (5.9)
	Senior	311 (8.9)	316 (9.0)	324 (9.3)
	High school			
	Senior	1,240 (35.5)	1,231 (35.3)	1,202 (34.4)
Health status	Excellent	773 (22.1)	784 (22.5)	757 (21.6)
	Very good	1,432 (41.0)	1,417 (40.6)	1,437 (41.1)
	Good	895 (25.6)	875 (25.1)	903 (25.8)
	Fair	336 (9.6)	343 (9.8)	338 (9.7)
	Poor	57 (1.6)	73 (2.1)	62 (1.8)
Drinking	No	451 (12.9)	531 (15.2)	526 (15.0)
	Yes	3,042 (87.1)	2,961 (84.8)	2,971 (85.0)
Sex after drinking	Yes	1,179 (34.4)	1,147 (32.8)	1,142 (32.7)
Smoking	No	961 (27.5)	964 (27.6)	934 (26.7)
	Yes	2,532 (72.5)	2,528 (72.4)	2,563 (73.3)
Economic status	Very high	316 (9.0)	362 (10.4)	380 (10.9)
	Upper middle	613 (17.5)	656 (18.8)	590 (16.9)
	Middle	1,322 (37.8)	1,262 (36.1)	1,284 (36.7)
	Low middle	780 (22.3)	690 (19.8)	746 (21.3)
	Very low	462 (13.2)	522 (14.9)	497 (14.2)

Note. n=unweighted, %=weighted.

명(4.7%), 2008년 총 75,238명 중 3,492명(4.6%), 2009년 총 75,066명 중 3,497명(4.7%)이었다. 이성과의 성교경험자 중 남학생과 여학생 분포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남학생 2,511명(71.9%), 여학생 982명(28.1%)이었고, 2008년에는 남학생 2,418명(69.2%), 여학생 1,074명(30.8%)이었다. 2009년에는 남학생 2,486명(71.1%), 여학생 1,011명(28.9%)이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3. 청소년의 피임실천율 및 피임방법

1) 피임실천율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자 중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실천율은 Table 2와 같다. ‘항상 피임을 했다’고 응답한 대상

자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 총 3,493명(남학생 2,511명, 여학생 982명) 중 840명(25.0%)이었고, 남학생이 653명(26.3%), 여학생이 187명(21.4%)이었다. 2008년에는 성교 경험자 총 3,492명(남학생 2,418명, 여학생 1,074명) 중 969명(28.0%)이 항상 피임을 사용하였고, 이 중 남학생이 715명(30.2%), 여학생이 254명(22.7%)이었다. 2009년에는 성교 경험자 총 3,497명(남학생 2,486명, 여학생 1,011명) 중 항상 피임을 사용한 대상자는 946명(26.7%)이었고, 이 중 남학생이 714명(28.0%), 여학생이 232명(23.3%)이었다. 항상 피임을 한 청소년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증가하였으나 2009년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전혀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 1,716명(47.2%)이었고, 남학생이 1,199명(46.4%), 여학생이 517명(49.3%)이었다. 2008

Table 2. Frequency of Contraception Use for Pregnancy Prevention

Contraceptive use	2007 (n=3,493)			2008 (n=3,492)			2009 (n=3,497)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n (%)	n (%)	n (%)	n (%)	n (%)	n (%)	n (%)	n (%)	n (%)
Always	653 (26.3)	187 (21.4)	840 (25.0)	715 (30.2)	254 (22.7)	969 (28.0)	714 (28.0)	232 (23.3)	946 (26.7)
Often	325 (13.4)	140 (15.7)	465 (14.1)	297 (12.2)	152 (14.8)	449 (12.9)	347 (14.6)	158 (16.4)	505 (15.1)
Rarely	334 (13.8)	138 (13.6)	472 (13.8)	293 (11.9)	149 (14.5)	442 (12.7)	268 (11.9)	152 (14.0)	420 (12.5)
Never	1,199 (46.4)	517 (49.3)	1,716 (47.2)	1,113 (45.7)	519 (47.9)	1,632 (46.3)	1,157 (45.5)	469 (46.2)	1,626 (45.7)

Note. n=unweighted, %=weighted.

Table 3. Frequently Used Contraceptive Methods

Variables	2007 (n=3,493)			2008 (n=3,492)			2009 (n=3,497)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n (%)	n (%)	n (%)	n (%)	n (%)	n (%)	n (%)	n (%)	n (%)
OC	80 (3.3)	35 (3.7)	115 (3.3)	53 (2.3)	50 (4.5)	103 (3.0)	68 (3.0)	36 (4.1)	104 (3.2)
Condom	892 (36.7)	297 (32.9)	1,189 (35.7)	912 (37.5)	381 (35.3)	1,293 (36.9)	999 (40.5)	389 (37.0)	1,388 (39.6)
Withdrawal	209 (8.3)	94 (10.4)	303 (8.9)	234 (10.0)	79 (7.5)	313 (9.3)	175 (6.9)	77 (7.7)	252 (7.1)
Rhythm	66 (2.6)	22 (2.5)	88 (2.6)	52 (1.9)	30 (3.2)	82 (2.3)	42 (2.2)	23 (3.5)	65 (2.6)
ECP	32 (1.5)	12 (1.0)	44 (1.3)	33 (1.6)	10 (1.2)	43 (1.5)	26 (1.0)	9 (0.8)	35 (0.9)
IUD	33 (1.2)	5 (0.3)	38 (1.0)	21 (0.9)	5 (0.4)	26 (0.7)	19 (1.0)	8 (0.6)	27 (0.9)
None	1,199 (46.4)	517 (49.2)	1,716 (47.2)	1,113 (45.7)	519 (47.9)	1,632 (46.3)	1,157 (45.5)	469 (46.2)	1,626 (45.7)

Note. n=unweighted, %=weighted.

OC=Oral contraceptive Pills; ECP=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IUD=Intrauterine device.

년에는 총 1,632명(46.3%)이었고, 이 중 남학생이 1,113명(45.7%), 여학생이 519명(47.9%)이었다. 2009년에는 총 1,626명(45.7%)이었고, 남학생이 1,157명(45.5%), 여학생이 469명(46.2%)이었다.

2)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Table 3과 같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법은 콘돔이었다. 전체 성교 경험자 중 먹는 피임약 사용은 2007년 115명(3.3%)에서 2008년 103명(3.0%), 2009년 104명(3.2%)으로 감소하였다. 콘돔은 2007년 1,189명(35.7%), 2008년 1,293명(36.9%), 2009년 1,388명(39.6%)으로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사용자가 증가하였다. 응급피임약은 2007년 44명(1.3%)에서 2008년 43명(1.5%), 2009년 35명(0.9%)으로 감소하였다. 자궁내장치(루프)는 2007년 38명(1.0%), 2008년 26명(0.7%), 2009년 27명(0.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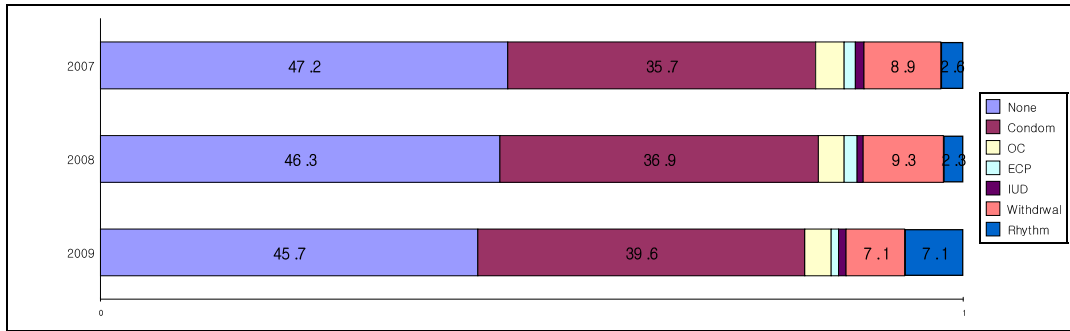
질외사정법은 2007년 303명(8.9%), 2008년 313명(9.3%), 2009년 252명(7.1%)으로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감소

하였고, 월경주기법은 2007년 88명(2.6%), 2008년 82명(2.3%), 2009년 65 (2.6%)이었다(Figure 2).

논 의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청소년들의 피임 실천율 및 피임방법 실태를 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성교경험은 4.7%내외이었고, 항상 피임을 하는 대상자들보다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효과적인 피임법 중에서는 콘돔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콘돔사용은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성교경험률은 본 연구결과 2007년 4.7%, 2008년 4.6%, 2009년 4.7%로 큰 변화가 없었고, 고학년일수록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성교경험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 비해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 2010; Lee et al., 2009; Lee et al., 2010; Nic Gabhainn et al., 2009; Park,



OC=Oral contraceptive Pills; ECP=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IUD=Intrauterine device.

Figure 2. Frequently used contraceptive methods.

2010; Song & Ji, 2010). 그리스(Tsitsika et al., 2010)나 중국 청소년(Song & Ji, 2010)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자고등학생들이 여고생들보다 성경험률이 더 높았다. 연령에 관련해서는 14~17세 미국 남녀 청소년에서도 질성교는 청소년 남녀 모두에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Fortenberry et al., 2010). 이처럼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성교경험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성교경험률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성교경험률은 서울 지역 남녀 중고등학생 1,026명중 남학생의 5.3%, 여학생 4.1%가 성경험이 있다고 한 연구(Yang, 2004)와 여고생 382명 중 3.4% (13명)가 성경험을 했다는 연구(Lee, 2009) 및 중국 전국조사에서 10~12학년 고등학생들의 성교경험률은 4.8%인 연구결과(Song & Ji, 2010)와 유사하다. 그러나 10대 청소년 627명 중 7.0% (Choi, Im, & Oh, 2004)나, 강원도 소재 중학생 20,734명 중 14.2%가 이성교 성교한 경험이 있었다는 결과(Choi, 2010)보다는 훨씬 낮다. 연구들 간의 이러한 차이는 지역이나 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내 청소년들의 성교경험률은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교경험률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12학년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성교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은 15.8%, 남학생은 29.2%이었다(Shtarkshall, Carmel, Jaffe-Hirschfield, & Woloski-Wruble, 2009).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협력국가들 중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15세 청소년의 성행태를 2001년에서 2002년에는 24개국, 2005년에서 2006년에는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2006년에는 약 27%가 성경험을 했고, 2005~2006년 사이의 조사 중 성교경험은 슬로바키아의 11.8%에서부터 그린랜드의 61.0%까지

차이가 많았다. 웨일즈, 불가리아, 덴마크, 그린랜드 네 나라는 1/3 이상이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Godeau et al., 2008; Nic Gabhainn et al., 2009) 국내 청소년들의 성교경험률보다 훨씬 높게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자가 여자들보다 성경험이 더 많은 점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항상 사용하는 대상자는 2007년 24.0%, 2008년 27.7%, 2009년 27.1%이었다. 2006년 2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분석한 Lee 등(2009)의 연구에서 성관계 경험자 중 피임실천율은 전체가 38.1%라고 하였으나 질외사정법이나 월경주기법을 포함한 피임실천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중 질외사정법이나 월경주기법과 같은 부적절한 피임법 사용률은 24.3%이었다(Lee et al., 2009). 이에 근거해 볼 때 효과적인 피임법을 항상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대학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임여부는 거의 안한다 8.9%,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44.6%, 항상한다 46.5%로 항상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절반이어서(Woo, 2011)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피임율보다는 다소 높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Woo, 2011)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에는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법과 같은 비효과적인 피임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실제 효과적인 피임을 항상 사용하는 자는 훨씬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할 때 효과적인 피임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이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

에 대해 항상, 대부분, 가끔, 전혀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피임은 임신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임신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추후 조사에서는 임신 및 성병 예방을 위해 피임을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으로 본 연구결과 콘돔사용이 가장 높았으며, 먹는 피임약, 응급피임약 사용자도 소수 있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 2차와 2007년 3차 조사를 분석한 연구(Lee et al., 2009; Lee et al., 2010)에서는 각각의 피임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부적절한 피임방법 사용률이 '콘돔'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콘돔사용은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임법이었는 데 국내 선행연구에서 대학생(Choi, Kim, & Shin, 2010)들에서도 콘돔사용이 가장 많았다. 세계보건기구 협력 하에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2002년에는 24개국, 2005~2006년 사이에는 30개국의 15세 청소년들의 콘돔과 경구피임약 사용 패턴을 조사한 결과 2005~2006년 사이에는 약 27%가 성경험을 했고, 마지막 성교 시 콘돔 또는 경구피임약을 사용한 사람은 85.9%로 높았다(Nic Gabhainn et al., 2009).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24개국 청소년들의 가장 최근 성교 시 피임 사용을 조사한 결과 콘돔사용은 스웨덴 청소년 52.7%에서 그리스 청소년 89.2%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콘돔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법이었다(Godeau et al., 2008; Shtarkshall et al., 2009). 그러나 본 연구결과 콘돔사용률은 35~40%에 불과하였다. 14-17세 미국 남녀 청소년들의 질성교 시 콘돔사용률은 남성에서 80%, 여성에서 69%이었던 결과(Fortenberry et al., 2010)와 비교해 볼 때 한국 청소년들의 콘돔사용률은 매우 낮아 성 관련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아테네 도시 지역 청소년 1,538명 중 16%가 성교경험이 있었고 성적으로 활발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콘돔을 사용하나(90.6%), 단지 32%만이 항상 그리고 성교 내내 사용하였다(Tsitsika et al., 2010). 멕시코 청소년들도 최근 3개월 내 성교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가장 최근 콘돔사용률은 68.3%이었고, 44.2%가 콘돔을 매번 사용하고 있었다(Alvarez, Villarruel, Zhou, & Gallegos, 2010). 이는 콘돔사용율과 항상 사용하는 율은 동일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한국 대학생들의 클라미디아 감염율은 남성이 8.4%, 여성이 10.6%이었는데 감염에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요인은 파트

너 수와 콘돔사용이었다(Lee et al., 2005). 이를 통해 볼 때 단순히 피임을 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효과적인 피임을 정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만을 조사하였는데 콘돔사용을 측정할 때는 Tsitsika 등(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항상 사용했느냐 뿐만 아니라 성교 내내 사용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대상자들의 음주와 흡연율은 높았으며 음주 후 성관계 경험은 30% 이상이었다. 음주나 흡연자, 또는 음주 후 성관계자들이 피임을 사용하지 않거나 질외사정과 같은 비효과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율이 높았다(Cavazos-Rehg et al., 2010; Lavikainen, Lintonen, & Kosunen, 2009). 따라서 음주나 흡연교육 시에 성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의 의사소통이 피임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Commendador, 2010) 부모들에게 자녀와 성에 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피임사용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경구피임약 사용은 스페인의 4.4%에서 네덜란드의 51.9%까지 다양했고(Nic Gabhainn et al., 2009),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24개국 청소년(11, 13, 15세)들 중 경구피임약 사용자는 8.4%이었다(Shtarkshall et al., 2008). 이에 비해 본 연구대상자인 한국 청소년들의 경구피임약 사용은 2007년, 2008년, 2009년 큰 변화가 없었고 사용률은 매우 낮았다. 이는 한국 여성들은 호르몬 경구피임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깊은 불신을 보이기 때문(Wiebe, Henderson, Choi, & Trouton, 2006)이거나 매일 복용해야 한다는 불편감이나 구입의 어려움 등의 장애 때문일 것으로 여겨지나 추후 연구에서 더 조사될 필요가 있다.

응급피임약에 관해 살펴보면, 그리스 아테네 도시 지역 청소년 1,538명 중 16%가 성교경험이 있었고, 여자청소년의 8.2%가 응급피임약을 사용하였다(Tsitsika et al., 2010). 이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의 응급피임약 사용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사용의도를 조사한 결과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낮았으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고 필요시 사용 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절반 정도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대다수가 응급피임약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다(Kang,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미국 등과는 달리 응급피임약 구입이 제도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구입절차의 불편함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점도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응급피임약 사용경험률은 성교경험자 190명 중 남성 4.2%, 여성 8.4%로 13.2%이었다(Kang & Moneyham, 2008). 일부 한국 대학생들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인공유산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시 응급피임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Kang,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을 사용한 한 적이 있는 여고생들의 수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외사정법은 실패율이 매우 높은 피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많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교를 하는 것이 알려지기를 꺼려 콘돔 등과 같은 피임을 구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거나 질외사정법으로도 안전하다는 잘못된 지식을 믿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피임방법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피임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어떤 피임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서 임신과 성병을 모두 예방하거나 성병예방만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응답하기에 한계가 있다. 2008년 제4차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결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남학생의 12.1%와 여학생의 8.8%가 성병경험이 있었다(Park, 2010). 강원도 소재 중학생 20,7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2% (2,946명)가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었다(Choi, 2010). 청소년들의 성병감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임신뿐만 아니라 성병을 보호하기 위한 피임사용 실태가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성행태 조사 내용 중 피임법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며 경구피임, 콘돔, 질외사정, 월경주기, 응급피임약으로만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피임법으로 패치, 질 링(ring), 살정제 등도 있으나 전국 조사 설문지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응답할 수 없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사문항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성교경험률은 크게 변화가 없으며 피임을 항상 사용하는 율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증가하였다가 2009년 다시 감소하였고, 30% 이하로 매우 낮았다. 피임 중 콘돔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2007년,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콘돔사용자가 더 증가하였다. 피임을 전

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상자들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피임을 사용하지 않거나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법 등과 같은 비효과적인 피임법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피임교육을 할 때에는 효과적인 피임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피임사용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 중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학생은 제외되어 청소년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전국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조사에 사용된 문항이 주로 사용하는 피임법만을 측정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마지막 성교(가장 최근 성교)시 사용한 피임법, 첫 성교 시 피임 사용 여부 등의 문항을 추가하여 청소년들의 피임행태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lvarez, C., Villarruel, A. M., Zhou, Y., & Gallegos, E. (2010). Predictors of condom use among Mexican Adolescents.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An International Journal, 24*(3), 187-196.
- Cavazos-Rehg, P. A., Krauss, M. J., Spitznagel, E. L., Schootman, M., Peipert, J. F., Cottler, L. B., et al. (2010). Type of contraception method used at last intercourse and associations with health risk behaviors among US adolescents. *Contraception, 82*, 549-555.
- Choi, C. S. (2010).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sexuality and sexual behavior prediction model in male Junior high school student in Kangwon provi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Choi, J., Kim, K., & Shin, M. (2010).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contraceptive use among college students: Function of gender, age, and residence. *Korean Journal of Living Science, 19*(3), 511-522.
- Choi, S., Im, Y., & Oh, H. (2004). A study on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contraception knowledge in female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1), 42-50.
- Chun, C. (2010). *Sexual behavior of youth in Korea*. Unpublished master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Commendador, K. A. (2010).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decision making and contraceptive use. *Pediatric Nursing, 36*(3), 147-156, 170.
- Fortenberry, J. D., Schick, V., Herbenick, D., Sanders, S. A., Dodge, B., & Reece, M. (2010). Sexual behaviors and condom use at last vaginal intercourse: a national sample

- of adolescents ages 14 to 17 years. *Journal of Sexual Medicine*, 7(Suppl 5), 305-314.
- Godeau, E., Gabhainn, S. N., Vignes, C., Ross, J., Boyce, W., & Todd, J. (2008). Contraceptive use by 15-year-old students at their last sexual intercourse results from 24 countrie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62(1), 66-73.
- Kang, H. S. (2006). Perceptions on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among you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2), 87-94.
- Kang, H. S. (2009).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nowledge, attitude, and intention of high school girls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4), 336-343.
- Kang, H. S., & Moneyham, L. (2008). Use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nd condoms by college students: 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775-783.
- Kim, D., & Kim, H. (2010). Early initiation of alcohol drinking, cigarette smoking, and sexual intercourse linked to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Findings from the 2006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Yonsei Medical Journal*, 51(1), 18-26.
- Kim, J. S., & Woo, C. S. (2010). An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sexual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bout sex of adolescents: on adolescents includ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9, 61-87.
- Lavikainen, H. M., Lintonen, T., & Kosunen, E. (2009). Sexual behavior and drinking style among teenagers: A population-based study in Finland.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4(2), 108-119.
- Lee, I. S., & Cho, J. Y. (2008). Comparative study on the contraceptive knowledge,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career tract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1(2), 75-88.
- Lee, I., Choi, G., Cha, S., Kim, M., & Lee, J. (2009). A survey of sexual behavior of teenagers in South Korea-2006.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52(10), 1022-1029.
- Lee, I., Choi, G., Cha, S., Park, H., & Lee, J. (2010). A survey on the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e third survey in 2007.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53(6), 512-519.
- Lee, K. (2009). *A study on relation of the girl's high school contraception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Lee, S. J., Cho, Y. H., Ha, U. S., Kim, S. W., Yoon, M. S., & Bae, K. (2005). Sexual behavior survey and screening for chlamydia and gonorrhea in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Urology*, 12(2), 187-193.
- Nic Gabhainn, S. N., Baban, A., Boyce, W., Godeau, E., & HBSC Sexual Health Focus Group (2009). How well protected are sexually active 15-year olds? Cross-national patterns in condom and contraceptive pill use 2002-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4(Suppl 2), 209-215.
- Park, G. (2010).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youth: According to a 2008 online survey on the health of youth*.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Shtarkshall, R. A., Carmel, S., Jaffe-Hirschfield, D., & Woloski-Wruble, A. (2009). Sexual Milestone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coitus initiation among israeli high school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8(4), 591-604.
- Song, Y., & Ji, C. (2010). Sexual intercourse and high-risk sexual behaviours among a national sample of urban adolescents in China. *Journal of Public Health*, 32(3), 312-321.
- Tsitsika, A., Greydanus, D., Konstantoulaki, E., Bountziouka, V., Deligiannis, I., Dimitrakopoulou, V., et al. (2010). Adolescents dealing with sexuality issues: a cross-sectional study in Greece. *Journal of Pediatric Adolescent Gynecology*, 23(5), 298-304.
- Wiebe, E. R., Henderson, A., Choi, J., & Trouton, K. (2006). Ethnic Korean women's perceptions about birth control. *Contraception*, 73(6), 623-627.
- Woo, K. (2011).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Yang, S. Y. (200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eenager's abortion and the better ways of sex education-targeted at middle and high schoolers in Seoul*.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